

李대통령 우울한 취임 100일

“자축보다 자성 필요” 청와대 안팎 뒤숭숭 ‘국민과 소통’ 국정운영 스타일 변화 모색

3일 취임 100일을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표정은 어두웠다. ‘최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국정 혼란으로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하락하고 내각과 청와대 참모들은 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으로부터도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탓이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고 곧바로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각종 공식회의에서 언론에 공개되는 모두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오늘은 지난 100일을 되돌아보며 자축해야 하는 날이지만 자성해야 할 점이 많다”며 착잡한 취임

100일 소감을 밝힌 뒤 “국민의 눈높이를 우리가 잘 몰랐던 점이 적지 않으며 오늘을 계기로 새롭게 시작하는 심정으로 일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정청도 철저한 자기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와 한나라당, 청와대 수뇌부는 앞서 이날 오전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회의에서 일제히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축제가 돼야 할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국민과 소통하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정부로서 부족함이 많았다.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

이처럼 집권 초반부터 혹독한 시련을 겪

으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도 변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취임 100일 만에 최고기 반대 시위대의 요란한 함성이 청와대까지 들리는 상황 속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앞으로 외부 노출을 가급적 억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다언(多言)의 부작용을 피하고 쌍방 소통에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번 파동을 계기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말을 줄이고 많이 듣는 쪽을 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의도식 정치’에 거리를 뒀었던 이 대통령은 이번 파문을 거치며 보다 정치적인 스타일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심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에 대한 보다 진지한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파문으로 많은 것을 다시 생각했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그 누구보다 실용적이라는 점에서 국정 운영 방식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립뉴스 기자 tuim@kwangju.co.kr



최고기 고시 유보에 따른 후속 조치와 고유가 대책에 따른 물가대책,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3차 고위당정회의가 3일 오전 서울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열려 한승수(왼쪽 다섯번째)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수 증가분 서민 지원에 적극 활용”

고위당정회의, 대책 마련

정부와 한나라당은 3일 민생안정대책과 관련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을 서민 증 지원에 적극 활용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삼성동 총리공관에서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한승수 국무총리 및 각 부처 장관, 류우익 대통령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당정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한나라당 조운선 대변인은 “세수 증가분이 서민 지원에 사용돼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세수 증가분 혜택 대상으로

는 화물차, 대중교통, 자영업자, 영세민과 저소득층”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대중교통의 경우에는 이런 혜택으로 공공요금 상승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라면서 “서민 생활고 대책의 하나로 석유류 유통구조 개선 의견도 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대형마트에서 주요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유소 간 경쟁 제고를 통해 유가인하를 유도하는 대책이 포함된다”면서 “유가상승으로 인한 운송료 부담을 영세업자에게 전가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조만간 후속 협의를 통해 종합적

인 고유가 극복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경기부양 차원에서 추진됐다가 좌절됐던 439천여억원의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회의에서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대운하나 공기업 민영화 같은 국민 혼선을 야기하는 정책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이 모여 논의하고 완급을 조절하고 국민의 견을 충분히 수렴하자”고 제안했다고 조 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이밖에 매주 수요일 오전 당정청 협의를 갖되 참석 대상은 실무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통령 ‘4월 조기 방미’ 때늦은 자성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문이 갈수록 확산되는 가운데 사태가 이처럼 꼬인 원초적 배경으로 대통령의 ‘4월 조기 방미’가 거론되면서 외교계가 이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논란은 ▲새정부가 출범한 직후 다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조기 방미를 추진했고 ▲쇠고기 문제에 대한 체계적 국민 정서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으며 ▲한·미 정상회담 직전에 쇠고기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민적 반감이 증폭했다는 ‘정형인식’에 따른 것이다.

외교 소식통은 3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상황에서 이에 대한 미국 측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이전

에 쇠고기 문제를 매듭짓는 게 필요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1일 대통령직 인수위 보고에서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미국 의회 제출이 불가능하다”며 “미국 측의 한·미 FTA 비준을 촉진하기 위해 쇠고기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되 이를 한·미 FTA 이행법안의 미 의회 제출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총선(4월9일)을 앞두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부각시키기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정부는 총선 이후 곧바로 쇠고기 협상에 진력했지만 한·미 정상회담(4월19일) 전까지 남은 기간은 체 열흘에 불과했다.

바뀌 말하면 한·미 정상회담 시기가 5~6

월로 늦춰 잡혔더라면 청와대와 정부도 여론 동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협상에 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4월 방미 방안을 실제 강력히 추진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외교계가 뒤늦게 회자되고 있다.

실제 대통령 취임 직후인 4월 방미에 이 대통령 자신은 물론 적지 않은 참모진이 총선 등 복잡한 국내정국 등을 고려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당선인의 보좌했던 일부 외교 전문가들이 ‘한미관계 복원’이라는 성과를 부각시키기 위해 서둘러 미국을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하게 건의해 ‘4월 조기 방미’가 성사됐다는 후문이다.

연립뉴스

美 업체들 “한국 수출 쇠고기에 월령 표시하겠다”

미국의 일부 쇠고기 업체들은 한국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에 대해 도축 당시 월령을 표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타이슨 푸드와 카길 미트솔루션, JBS 스위프트, 내셔널 비프패킹, 스미스필드 비프그roup 등 미 쇠고기 업체들은 이날 발표한 공동 언론보도문에서 이 라벨이 도축 시점에

서 해당 소가 30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보여줄 것 같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구입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소비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 업체의 쇠고기 월령 표시 계획은 그러나 최대 120일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연립뉴스

타이슨 푸드의 캐리 미켈슨 대변인은 “우리는 한국 시장의 재개방과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시적인 라벨링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실행할 것”이라면서 업체들은 라벨을 어떻게 보이게 할 것인지, 상차 어느 부분에 부착할 지 등을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립뉴스

2009년 공무원시험 상한 응시연령제한 폐지로 공무원 시험 열풍! 귀하를 광주 "한빛고시학원"에서 합격률 책임지겠습니다.

7급 공무원시험 [국가지] 합격! 최강퍼펙트강좌

www.hanbitgosi.co.kr
들어오시면 전국최고의 시설과 최다합격자 최강의 강사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론반 2개월 완성	문제풀이 2개월 완성(이론+문제)	전과목 단과개설 2개월 완성	이론 짝수반 2개월 완성	서울시 문제풀이 4주 완성	법원·검찰직 2개월 완성	소방·기술직 공정·보안·사형박지 2개월 완성	농업직 농림수산·농지토지 영농·농·축·수·림·어업 2개월 완성
----------------------	------------------------------	---------------------------	-------------------------	--------------------------	-------------------------	---------------------------------------	--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 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www.hanbitgosi.co.kr
합격이속
개강 6월2일
첫진도 주/야간반 모집

에비공무원사관학교
한빛
공무원학원
전대후문 북구청앞 234-0234

저렴한 광고비 뛰어난 광고 효과!

광고접수 및 문의 직통전화: 227-9600 FAX: 227-9500

= 합격률 전국 1위 =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재직자 수강지원과정
수강료 50% 환급과정
현재상담접수중

- ♣ 현대적 학습시설
- ♣ 첨단학습보조 시스템
- ♣ 과학적 평가시스템
- ♣ 창업 및 취업 센터 운영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36-2467~8
고객무료전화 080-0236-2468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교수진 전원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한국경제TV·부동산TV강사진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신 전국 수석 2명 배출(연태환 남 48세 최영아 여 31세)

개강 매월초 주야 합격강좌

5~6월: 기본이론(기본이론부터 심화학습강좌)
7~8월: 핵심기본이론 및 단월별 문제풀이 강좌
9~10월: 최종정리 및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 강좌

수강료 50%·80% 환급 사전 접수바람

● 전국 최대규모의 공인중개사 전문학원(전국33개 학원제인) ● 최고의 교수진들로 강의 질하는 학원1위 ● 선배합격자들이 추천한 1등학원 ● 믿음과 신뢰를 주는 학원1위

합격률1위 전국수석합격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서구점 ☎ 361-8111 북구점 ☎ 529-8111

▶ 농성동 서구청 앞 광주은행 건물 2층 ▶ 개림동 구시청사거리(중흥동) 대원빌딩 옆 청송빌딩 6층

= 정부는 올해안에 소방공무원 2,228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성황리 강의중) =

7급 공무원 완전 대비

행정직	교정직	세무직	관공직	감사직	법원직	경찰직	공정직	보훈직	소방직	전공직	특수직	특수직	기술직	보통직
-----	-----	-----	-----	-----	-----	-----	-----	-----	-----	-----	-----	-----	-----	-----

※ 보건직 전남23명, 전북16명 9월27일, 경기56명 8월2일, 서울29명 (월강중) ※

금년 중·하반기 시험

6월2일 (주·야간모집) (현재예약중)

합격수강 회원모집

6개월 (주)회원 80만원
1년 (정)회원 120만원
합격시까지 170만원

= 갈(感)이 좋은 학원! 『無等』을 찾아주세요!! =

考試의 名門 **무등고시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중앙초교 후문앞) ☎ 222-4560

www.mdgosi.co.kr